

정조 율음언해의 시작, 『효유율음』에 대하여

이영경*

〈차 례〉

1. 서론
2. 『효유율음』의 형태적 특징과 언해의 성격
3. 언어적 특징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조대의 첫 율음언해인 『효유율음』의 국어사적 가치와 그 언어적 특징에 대해 조명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효유율음』은 정조 즉위년(1777)에 위조 율음이 유포되자 혼란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린 율음으로, 한문과, 순한글로 된 언해문을 독립된 텍스트로 나란히 실는 형태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정조 초기의 율음인 만큼 전형적인 율음언해에 비해 다소 과도기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가장 큰 특징은 율음언해의 일반적인 번역과는 달리 원문에 얽매이지 않는 강한 의역의 번역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적으로는 18세기 후반 국어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만 先代인 영조대의 한글율음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균질성이 떨어지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율음의 언해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율음, 율음언해, 정조, 효유율음, 직역, 의역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서론

본 연구는 정조 율음언해의 시작인 『효유율음』의 국어사적 가치와 그 언어적 특징에 대해 조명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효유율음』은 정조 즉위년(1776)에 위조 율음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로 인해 혼란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린 율음으로, 한문과 언해문이 함께 수록된 1책의 활자본으로 전한다.¹⁾ 권말에 간행일자가 없지만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율음의 반포 시기가 1777년 2월경인 것으로 추정되며,²⁾ 정조 연간의 율음언해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³⁾

현전하는 율음언해는 30여 편인데 그 중 정조대의 것이 25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율음언해의 전형은 정조대의 율음언해로 대표되고 있으며, 그 특유의 언해 체재나 번역 방식, 문체 등은 정조대에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바탕으로 국어사 자료로서의 율음언해의 형식과 언어적 특징이 주목받고 정형화되어 왔다.

그러나 율음의 언해는 영조대에 시작되었고, 영조는 율음을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삼으며⁴⁾ 이를 매개할 수단으로 한글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두 편에 불과하지만⁵⁾ 영조는 그 언해의 방식과 책의 체재 등에 대해 신하들과 직접 논의할 만큼 율음의 언해에 신경을 썼고, 영조의 율음언해는 형

1) 정조 연간의 거의 모든 율음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효유율음』은 한 권만이 규장각본이 아닌 고도서(古 4253-4)로 현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 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이 책이 고도서로 남아 있는 이유를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 語學篇 解説』(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2001 : 426)에서는 이 책이 정조 즉위 후 규장각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은 시점에 간행된 것이기 때문이라 추정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 책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모습도 이러한 사정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조 즉위년(1776) 12월 25일 壬戌조 기사에 의하면, 이듬해(1777년) 2월에 이 사건과 관련한 鞠事를 파하고 藝文 提學 徐命善에게 율음을 代撰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 별책으로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인 1777년(정조 1)에 간행된 『명의록언해』의 『卷首』에 실린 율음이 있는데, 이는 율음만을 위한 언해로서 따로 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4) 원래 '입급의 말씀'을 의미하던 율음이 독자적인 문서 형식으로 구축되어 왕명 전달의 새로운 공식 수단이 된 것은 영조대 중반 이후부터였고 영조는 율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유독 선호하였다고 한다(김백철, 2011 : 12-13).

5) 『천의소감언해』 『눈음』(1756)과 『어제계주율음』(1757)이 그것이며, 처음부터 한글로 작성된 『어제경민음』(1762)을 포함하면 한글로 된 영조대의 율음은 모두 세 편이다.

식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꽤 정제된 모습을 보여준다.⁶⁾ 율음에 대한 이와 같은 영조의 태도와 율음언해의 방식 등은 정조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영조의 율음언해와 정조의 율음언해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조의 첫 율음언해 『효유윤음』은 율음의 언해에서 先代의 전통 계승과 새로운 변화를 살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효유윤음』은 문헌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별로 주목을 받은 일이 없으며, 자료에 대한 해제 정도의 논의 외에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은 1782년(정조 6) 율음 언해의 방식이 교서관을 통한 언해로 확립되기 이전에 나온 정조 초기 율음언해로서,⁷⁾ 전형적인 율음언해에 비해 다소 과도기적이고 독특한 모습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유윤음』을 통해 영조 율음언해의 수용과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이 책의 자료적 특징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 책이 보여주는 18세기 후반의 언어 사실과 그 특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다.

2. 『효유윤음』의 형태적 특징과 언해의 성격

1) 형태·서지적 특징

이 책은 한문과 언해문을 차례로 수록한 1책의 목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한문 3장, 언해문 5장의 총 8장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과 언해문 모두 10행 18자의 동일한 판식이다. 권수제는 한문본은 ‘曉諭繪音’, 언해본은 ‘효유윤음’이며 판심제도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권말에 刊記도 따로 없고 따라서 간행지와 간행자도 알 수 없다.

6) 이영경(2018 : 109-111), 이영경(2019; 218-221)에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되어 있다.

7) 황선엽(2011 : 15-16)에서는 그 전까지 각 지방별로 행해지던 율음의 언해가 1782년(정조 6)부터 교서관에 의한 중앙의 언해로 바뀐으로써 율음 언해의 방식이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책의 체제는 우선 한문으로 된 『曉諭綸音』을 먼저 실은 다음, 장을 달리 하여 순한글로 된 언해본 『효유눈음』을 실음으로써 한문과 언해문이 완전히 분책될 수 있는 체제로 편찬하였다. 이는 영조대 『천의소감언해』 『윤음』(1756) 및 『어제계주윤음』(1757)의 체제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언해본이 한문 원문이 아예 없이 언해본만으로,⁸⁾ 후자는 한문(구결문)과 언해문이 각기 차례로 수록되어 분책될 수 있는 체제로 편찬된 것이다.

이 책은 『어제계주윤음』의 분책 체제를 따르되, 다만 앞에 수록한 한문 원문에 한자음과 구결을 달지 않았다. 『어제계주윤음』의 언해에서 한문 본문에 한자음과 구결을 단 것은 언해문을 통한 윤음 내용의 수용에 있어서 원문의 이해와 활용을 염두에 둔, 이전 언해의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언해문이 분책될 수는 있으나 기왕의 언해처럼 한문 원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해 『효유윤음』은 한문으로 된 원래의 윤음과 순한글로 된 언해문을 각기 독자적인 텍스트로 나란히 실는 체제를 취하였다. 말하자면 하나의 윤음이 한문과 언문의 이중언어 텍스트로 동시에 유포되는 형태였는데, 이처럼 언해문이 한문 텍스트와 함께 이중언어 텍스트로 유통되는 것은 당시 드물지 않았으나⁹⁾ 윤음의 경우는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문과 언문의 위계적 사용이 엄격하던 조선에서, 한글이 국가 공식 문서의 일부로 사용됨으로써 문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책 이후 윤음의 언해본은 한문과 독립된 독자적인 텍스트로 제작되어 한문과 함께 유포되는 것이 관례화된다. 윤음의 시행 절차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이른바 ‘眞諺翻謄’이 바로 이를 말한다.¹⁰⁾

8) 『천의소감언해』는 4권 4책의 한문본 『천의소감』을 언해하면서 언해본의 卷首에 『눈음』을 함께 수록한 것인데, 언해본은 한문 원문 없이 언해본만으로 되어 있다. 같은 해에 간행된 『종덕신편언해』도 한문본과 언해본이 독립된 동일한 체제로 편찬되었다.

9) 당시 이미 각종 글이나 서적들을 眞諺으로 동시에 펴내거나 다양한 문예물들이 텍스트 수용층에 따라 이중언어 텍스트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이현희·이영경 외, 2014 : 289).

10) ‘眞諺翻謄’에 대해서는 백두현(2009 : 289-290)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언해문의 형식상의 독립은 내용적으로도 보다 충실함을 요구하게 된다. 언해문이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언문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원문의 충실한 번역과 함께 내용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협주의 등장이다. 영조대의 율음언해와 비교하여 정조의 율음언해에 나타나는 체재상의 차이 중 하나가 협주 사용이다. 원문에는 없는 협주를 추가하여 언해문의 내용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인데, 이는 언해문의 텍스트로서의 독자성과 자족성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협주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에 나타나는 협주는 그 성격이 좀 특이하다. 기존의 언해에서 협주는 주로 직역의 문헌에서 원문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의 풀이나 원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등에 사용되었으나 이 책에서는 언급되는 인물에 대한 지시나 간단한 문맥 제시에만 활용된다. 후술하겠지만 원문의 어려운 한자어는 보다 쉬운 단어나 유의어를 활용하거나 아예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번역함으로써 문장 내에서 소화하는 것이 이 책 번역의 태도인 것이다.

- (1) ㄱ. 낭기와 왕망의[낭기와 왕망은 두 사람의 일흠이니 한 적 나라 척니로서
역적흔 놈이래] 흥흔 거슨 … <1b>
 ㄴ. 치운이와 천희의[치운이와 천희는 두 놈의 일흠이니 선조의 국적이라]
 역적은 … <1b>
 ㄷ. 그 위조흔 글의 글와시되 운운이라 하니[위조흔 글은 진서의는 다 올리
 고 언문의는 니로 다 쓰지 못흐노래] <2b>
 ㄹ. 혹 유현의[무신년 역적놈의 일흠이래] 무망을 인흐고 <3a>
 ㅁ. 혹 지적의[을히년 역적의 일흠이래] 패셔로 말미아마시되 <3b>
 ㅂ. 은연이 거려 둥의 잇기의 아직 반포 아니흐노란 말로[위조 늪음 둥 말이
 래] <3b>

예 (1)이 이 글에서 나타난 협주의 전부인데, (1ㄱ), (1ㄴ), (1ㄹ), (1ㅁ)은

모두 언급된 실제 인물들에 대해 지정하거나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1ㄷ)과 (1ㄴ)은 문맥에 대한 간략한 보충 설명으로서, 문제의 위조 율음 내용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 (1ㄷ)은 위조 율음의 내용을 한문에는 수록하였으나 언해문에는 수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고, (1ㄴ)은 인용된 부분이 위조 율음 중의 내용임을 알림으로써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의 협주는 문맥 지시를 위해 간단히 활용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¹¹⁾ 이는 순전히 이 책의 번역 태도 때문이다. 이 책 외에 동 시기 간행된 『명의록언해어제윤음』을 포함한 그 이후의 율음들에서는 한자어 해설을 포함하여 기존과 같은 역할로 협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의 과도기적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 영조 율음언해와의 차이는 율음 본문 시작의 서술 방식이다. 왕의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정형적인 문서식에 따라 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 (2) ㄱ. 왕약왈 나 부덕이 외람이 큰 기업을 닛스와 <효유윤음 1a>
 ㄴ. 왕약왈 오희라 신임년 일을 엇지 춤아 니르리오 <명의록언해어제윤음 1a>
- (3) ㄱ. 희라 요순의 도논 효테 싹름이니 <천의소감언해윤음 1a>
 ㄴ. 오희라 나의 고흥과 경직와 나의 빅료는 다 나의 기유희를 드르라
 <어제계주윤음 19a>
 ㄷ. 오희라 내 너의 부모 되얀 지 그 멧히노 <어제경민음 1a>

위의 (2ㄱ)과 같이 이 책은 ‘효유윤음’이라는 제목 다음에 “왕약왈 …”로 본문을 시작한다. 이는 (2ㄴ)과 같이 『명의록언해어제윤음』에서도 동일하다. 조선 시대 국왕의 공식 문서는 대체로 정형적인 문서식을 취한다. 김백철(2011: 15)에 따르면 국왕의 문서로서 대표적인 ‘교서’의 경우 대개 “敎…書” 혹은 “…敎書”와 같은 표제가 제시된 후 “王若曰”로 내용을 시작하여 “故茲敎示, 想宜知悉”과 같이 끝맺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교서의 문투식은

11) 특히 (1ㄴ)에서 어려운 원문의 한자어가 기존 관례대로 협주를 활용한 설명 대신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의역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2장의 (6ㄷ)에서 후술될 것이다.

윤음에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정조의 율음언해는 이러한 교서의 문투식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투식은 (3)에서 보듯이 직전의 율음언해인 영조대의 예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¹²⁾

이러한 차이는 율음의 작성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기록에서 이들 율음의 작성 과정과 방식을 알 수 있다.

- (4) ㄱ. 정원과 약원을 명하야 입시하고 혀여곰 편을 가더 혼가디로 들나하야
 정정하야 아침을 기다려 윤음을 불러 쓰이고 <천의소감언해윤음 3b>
 ㄴ. 그 수구로움을 쓰리지 아니하고 반야의 글을 지어 아침을 기다려 불러
기유하고 <어제계주윤음 32a>
 ㄷ. 탄일이 혀르밤이 그리왔고 넷날을 심각혀읍는 밋음이 근결혀되 춤
자지 못하야 불러 쓰이니 <어제경민음 7a-b>
- (5)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윤음(綸音)을 대찬(代撰)하게 했는데, 율음에 이르기
 를... (命詞臣代撰綸音曰...)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병신(1776)12월 25일
 (임술)>

예 (4)의 기록들을 보면 영조의 한글윤음은 영조가 직접 지어 개유하거나 신하를 불러서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 따라서 ‘왕의 말을 전한다’는 의미의 ‘왕약왈’이라는 서두식을 사용하지 않고 위 (2 ㄴ)의 “... 다 나의 기유함을 드러라”에서 특히 잘 드러나듯이 직접 개유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조의 『효유윤음』은 (5)의 실록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정조가 신하에게 윤음을 대찬하게 하여 작성되었다.¹⁴⁾ 이처럼 신하가 대신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의 정형적인

12) 김백철(2011 : 35)에 따르면 영조대에도 처음 御製를 반포할 때 “王若曰”과 같은 문투식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초기에 이러한 문투식을 몇 차례 따르기도 하였지만, 이후 왕이 친히 글을 지어 반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지면서 “왕이 직접 지은 글을 구분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러한 문투식을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13) 특히 영조는 즉위 중반기 이후 정국이 안정되자 미리 준비해 온 글을 내리기보다 직접 승지가 쓰도록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머릿속의 생각을 즉석에서 쓰게 하다 보니 그만큼 격식이나 문투는 정형성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김백철, 2011 : 35).

서두식인 “王若曰”로 시작하는 방식을 따랐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율음뿐 아니라 정조의 율음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며, 이와 같은 서두식이 향후 율음언해의 전형으로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해문에서 이 “王若曰”의 번역이 약간 달라졌는데, 『효유율음』과 함께 정조 즉위 초에 간행된 『명의록언해어제율음』에서는 이 한자어를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왕약왈”로 번역한 반면 그 이후의 다른 율음언해에서는 모두 “왕이 이러트시 글으샤 디”로 풀어서 번역하고 있다.¹⁵⁾ 언해문에서의 서두식은 후자의 방식으로 정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책은 제목을 포함하여 본문을 한 칸 낮추어 쓰면서 위의 ‘왕약왈’, ‘선대왕’, ‘종사’ 등은 칸을 높여서 존대를 표시하는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영조대 율음언해의 예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명의록언해어제율음』을 포함하여 이후 간행된 정조의 율음언해 중에는 이와 같은 구분을 하지 않고 맨 위칸을 모두 채워 쓴 것들도 적지 않다.

요컨대 형태적인 측면에서 『효유율음』은 대체로 先代인 영조대 율음언해의 예를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형태로 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언해의 성격

이 책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언해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율음언해는 전형적인 직역의 문헌인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의 번역은 의역의 모습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우선 글 전반적으로 원문의 한자를 가급적 고유어 또는 쉬운 어휘로 번역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6) ㄱ. 슬프다 <2b, 3a, 3a, 4b>(嗚呼痛矣, 嗟哉, 噫, 嗟)

14) 실록 기사의 끝에 “藝文提學徐命善製進”이라는 기록이 있다. 앞의 각주 2) 참조.

15) 임금이 직접 지었다는 뜻의 ‘御製’가 붙은 율음들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서두식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ㄱ'. 오히라 <4b>(嗚呼)
- ㄴ. 이제로조차 간악하고 몹쓸 놈의 굴혈을 가히 썩려 깨칠 거시로되 <3b-4a>(從此庶可以打破 奸究之窩窟)
- ㄷ. 넷말의 낱은 바 놀나오되 몹이 서늘한단 말도 오히려 헐후헐 말이라 <3b>(所謂凜然而寒心者 猶屬歇後語也)
- ㄹ. 은연이 거러 둥의 잇기의 아직 반포 아니호란 말로 <3b>(隱然以未闕諱 闕 姑不頒示等語)

(6ㄱ)에서 율음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자어 감탄사 또는 발어사 ‘嗚呼’, ‘噫’, ‘嗟’ 등을 모두 고유어 ‘슬프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6ㄱ)에서처럼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만 원문의 ‘嗚呼’를 한자어 그대로 ‘오히라’로 번역하고, 그 외에는 원문의 다양한 감탄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슬프다’로 번역한 것이다.¹⁶⁾ 이전의 영조 율음언해에서는 ‘嗚呼’, ‘噫’, ‘嗟’를 각각 모두 ‘오히라[嗚呼]’, ‘희래[噫]’, ‘차흠대[嗟]’로 원문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슬프다’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극단적 직역의 모습을 보인 경서언해의 예를 따른 것인데, 『천의소감언해율음』과 『어제계주율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문 원문 없이 한글로만 지어진 『어제경민음』에서도 ‘오히라’, ‘차흠대’와 같은 한자어 감탄사만 사용되었다.¹⁷⁾ 이처럼 감탄사의 번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위조율음의 유포로 인해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린 율음의 내용을 일반 백성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한 이 책 번역의 의도 및 성격과 관련되는 듯하다.

(6ㄴ)에서는 원문의 한자어 ‘奸究’를 ‘간악하고 몹쓸 놈’, ‘窩窟’을 ‘굴혈’, ‘打破’를 ‘썩려 깨칠’과 같이 보다 쉬운 국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16) 원문에서 처음 나오는 감탄사로 수사의문문 “居廬訊囚 數心降論 豈得已也” 앞에 쓰인 ‘噫嘻(1b)’는 번역을 하지 않았다.

17) 이 책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또 다른 정조 초기의 율음언해 『명의록언해어제율음』에서는 ‘嗟’의 번역에 한해 ‘슬프다’가 나타나고 다른 감탄사는 원문의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에 사용하고 있어 이 책과는 차이를 보인다. ‘嗟’의 경우 기존의 언해에서 통상 형용사 형태인 ‘차흠대’로 번역되어 왔기 때문인 듯하다.

수 있다. (6ㄷ)에서 ‘(所謂)凜然而寒心者’의 ‘凜然’은 ‘차다, 섬뜩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영조대 문헌에서부터 대개 한자어 그대로 ‘늴연흐-’로 번역되어 흔히 사용되던 말인데, 이 책에서 ‘놀나오리’로 번역되었다. 위의 인용구는 동 시기의 『명의록언해』에서도 나오는데 “그 늴연흐야 只음이 서늘흔 채(卷首下어제음음 : 7a)”, “늴연이 한심흠은(卷首上 : 40ㄱ)”, “늴연히 한심흔지라(明義2 : 6a)”와 같이 원문의 한자를 이용한 직역의 번역이 되어 있어 이 책과 대비된다. 이 책의 이러한 번역 태도는 글 전반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모습이다. (6ㄹ)에서 ‘未闕諒闇’을 원문대로 임금의居喪 절차를 가리키는 ‘諒闇’이란 단어를 써서 ‘아직 양암이 끝나지 않았다’로 번역하는 대신,¹⁸⁾ 비슷한 의미의 일반인에게 익숙한 ‘거려(居廬)’를 사용하여 ‘거려중에 있다’는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준다.

또한 원문의 문장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국어의 문장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자 하는 경향도 강하게 보여준다. 말하자면 축자적인 번역에 얽매이거나 문어체인 한문의 문체를 고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7) ㄱ. 동궁의 이실 새로부터 쓴 훼방과 쓴말이 흔두 가지 아니니 <2b>(自在春邸 凡係浮謗浮言 不一而足)
- ㄴ. 이번 위조흔 거슨 진실로 가이 소길 뜻흔 거시라 <3a>(而今此偽造之舉 眞所謂可欺其方)
- ㄷ. 오히려 다스리들 아니흐야 헝여곰 새로운 교화의 니르게 헝려 헝더니 <2a>(而猶此付之罔治之科 俾底於維新之化)
- ㄹ. 목하의 가히 고지듯게 헝 도리를 믿드는 변은 네도 듯지 못흔 일이니 <3b>(而未聞.....作爲目下可信之端)

18) ‘諒闇’은 ‘임금이 부모의 상중에 있을 때 거처하는 방. 또는 그렇게 거처하는 기간’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7ㄱ), (7ㄴ)과 같이 원문의 동사 ‘係’나 명사 ‘其方’을 번역에서 빼 버리거나 (7ㄷ)과 같이 원문의 복잡한 동사구를 고유어 동사 ‘다스리-’로 간단히 번역하는 한편으로, (7ㄷ)과 같이 원문에는 없는 ‘변은’, ‘네도’와 같은 단어를 추가하거나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의역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원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원문의 한 구절을 통째로 빼 버리거나 심지어 문장 유형을 바꾸기도 하는 등 원문을 과감하게 침삭하고 변개하여 번역한 부분도 보인다.

- ㄱ. 그 위조한 글의 글와시되 윤운이라 하니 <2b>(其偽造之文 有曰 明春蠶朔告廟 … 勿爲犯科 云云)
- ㄴ. 그 위조 윤음 가운데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수리의 혼 가지로 시켜 려노란 말은 <4a-b>(其所稱剝皮五車等說)
- ㄷ. 슬프다 나의 팔방 빅성들아 흥흥 무리의 계괴 지극히 공고하고 지극히 독하여 <3a>(嗟哉 八方民庶 何以知凶徒之作此舉也 大抵凶徒之計 至巧且僭)
- ㄹ. 과인이 거러하는 가운데 죄슈를 뜨르며 심복을 거울러 눈음을 여러 번 느리오미 진실로 마지 못하여 흐미라 <1b-2a>(居廬訊囚 敷心降綸 豈得已也)

전술한 것처럼 언해문에는 (8ㄱ)과 같이 “그 위조한 글의 글와시되” 다음에 한문 원문에 수록된 위조 윤음의 내용(밑줄 친 부분)을 모두 빼 버리고 “윤운이라 하니”로 번역하였다.¹⁹⁾ 새로운 정보도 아니고 번역하기에는 분량

19) 원문에 실린 위조 윤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其偽造之文 有曰 ‘明春蠶朔告廟, 改革科規, 論表策頌箴, 通用雜科詩賦義疑。 只選監試科會, 親爲面試, 考講經書, 疤記面目, 若非其人, 罷黜定配。’ 又曰: ‘御史探知民情, 則有勢富民, 納賂免役, 借名雇立, 雇工無根之人, 今日捧棒, 明日逃亡, 頗多有之。 虛錄軍伍, 實出役重, 伊後切禁遊人, 無預軍額。 方伯該官犯禁, 五車齊鞭, 決不饒貸。’ 又曰: ‘官吏受賂枉法, 爲先正刑, 罔上考官, 難免剝皮之律。’ 又曰: ‘藉其世族, 虛錄儒名兩班者, 明年春籍, 實考講時, 沒數充軍。 或公私凡人中, 能通古文者, 不拘門地, 不次陸階。 若有考官該吏受賂弄奸之弊, 則逆律同治。 以酒亡國, 大禹所戒, 況爲人

이 많고 내용이 장황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위조 윤음의 내용을 생략하다보니 (8ㄴ)과 같이 그 일부를 인용한 부분에서 문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조 윤음의 내용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 (8ㄷ)과 (8ㄹ)은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8ㄷ)에서는 원문의 수사의문문 ‘八方民庶 何以知凶徒之作此舉也’에서²⁰⁾ 서술어에 해당하는 ‘何以知凶徒之作此舉也’ 부분을 번역에서 빼 버리고 앞의 주어 ‘八方民庶’를 ‘나의 팔방 백성들이’와 같이 호격어로 처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8ㄹ)에서는 ‘…豈得已也’와 같이 수사의문문으로 끝난 원문을 ‘진실로 마지 못하야 함이라’의 평서문으로 번역하였다.²¹⁾ 이처럼 원문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의역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 전반에서 일관되는 이러한 번역 태도는 전형적인 윤음언해는 물론이고 공식적인 글의 번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위조 윤음 사건에 관한 백성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과, 아직 윤음의 언해와 관련한 체계 및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언해였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3. 언어적 특징

1) 표기

이 책의 표기는 대체로 18세기 중후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워낙 표기가 혼란스럽던 상황이기도 한데, 앞선 영조대의 한글윤음들에 비해 표기에서 균질성이 떨어지고 다소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君, 豈不痛禁? 除軍布設爲戶布, 在諒闇事不當輕, 姑爲留念。 不能領示八路。 揭榜內寺成均館, 知悉綸音, 與我臣民, 勿爲犯科。’ 云云

20) 이 구절은 ‘팔방의 백성들이 어떻게 흉도들이 이 거조를 만들어낸 것인 줄 알겠는가?’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21) ‘豈得已也’는 ‘어찌 멈출(그만둘) 수 있겠는가?’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 (9) ㄱ. 거시, 거슨, 다스리미, 부탁흐시미; 평안케 흡은, 소동흡은
 ㄴ. 날어나논, 날은바, 말야; 니러나미, 민드라, 어더, 니르미(曰), 마라, 미들
 진더
 ㄴ'. 니르케(至); 날으미
 ㄷ. 외람이, 범연이, 평안이, 불이, 움죽이게; 기리, 느추기의, 소기러
 ㄹ. 못술, 밋즈며, 밋춘, 이긋치, 썩로부터, 댓도와

(9ㄱ)과 같이 의존명사 ‘것’과 명사형어미 ‘-음’의 곡용을 제외하면 체언의 분철은 거의 완성되어 있다. ‘것’은 항상 연철 표기되고, ‘-음’은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둘 다 문법형태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전자의 경우 종성 ‘ㅅ’의 표기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그 예외성이 인정된다.²²⁾ 용언의 활용에서는 (9ㄴ)과 같이 분철 표기와 연철 표기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단어에 대해 ‘날어나논’과 ‘니러나미’, ‘날은바’와 ‘니르미(曰)’, ‘말야’와 ‘마라’처럼²³⁾ 두 가지 표기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며, (9ㄴ')와 같이 과도 분철 표기가 함께 나타나기도 하는 등 극히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9ㄷ)에서의 파생부사 표기이다. ‘기리’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어근과 접미사 ‘-이’를 분철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불이’와 같이 접받침이 분철된 사례도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사동접미사의 분철 표기는 ‘움죽이다’의 예에 국한된다. (9ㄹ)은 중철표기의 예인데, 대개 이 시기 격음의 어간 말음이 연음되는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분철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종성에서 표기될 수 없는 격음들이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다만 부사격 조사 ‘로부터’는 연철 표기된 ‘로부터’, ‘로부터’로도 나타나며, ‘댓도와’는 격음 말음과 관련 없는 중철 표기 사례이다. 한편 ‘ㅅ’ 말음의 중철 표기 ‘못술’은 (9ㄱ)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에 서술될 ‘ㅅ’, ‘ㄷ’ 종성 표기와 관련된다.

이 책이 보여주는 ‘ㅅ’, ‘ㄷ’ 종성 표기는 이 시기 다른 문헌들에서 나타나

22)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23) ‘말야’와 ‘마라’는 종결형이 아니라 동사 ‘말-’에 연결어미 ‘-야’가 결합된 접속형이다.

는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ㅅ’과 ‘ㄷ’이 종성에서 중화되면서 ‘ㄷ’을 종성으로 가진 단어들 이 모두 ‘ㅅ’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10) 밋부지, 밋즈와, 꺾(卽), 고지듯게, 듯지, 닷느디라; 어더, 미들진더

예 (10)에서 ‘민-, 받-, 곧, 듣-’ 등과 ‘ㅎ’ 발음의 ‘닿-’이 종성 자리에서 모두 ‘ㅅ’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뒤에 모음어미가 오는 경우는 ‘어더, 미들진더’와 같이 연철 표기되어 있다.²⁴⁾ 이처럼 ‘ㄷ’ 종성이 ‘ㅅ’ 표기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ㄷ’과 ‘ㅅ’의 두 종성을 구별하기 위해 전자는 ‘ㅅ’으로 표기하여 분철하고 후자는 연철 또는 증철로 표기하는 방식이 17세기 이후 유행하게 되는데,²⁵⁾ 위의 (9ㄱ), (9ㄷ)에서 살펴본 이 책의 ‘갓’과 ‘뫓’의 표기는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갓’은 연철 표기가, ‘뫓’은 증철 표기가 되어 차이를 나타낸다.

된소리의 표기는 대체로 ‘ㅅ’계 합용병서로 통일되어 있으나 ‘ㅂ’계 합용병서도 일부 보인다.

(11) 싸지고, 새로부터, 쓴말, 깨칠; 힘쁘고, 뵈지(書), 뵈

예 (11)에서처럼 ‘ㅅ’을 제외한 ‘ㅂ, ㄷ, ㄱ’의 된소리가 모두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고 있다.²⁶⁾ ‘ㅅ’의 예는 모두 동사 ‘쁘-’와 관련되는데, ‘힘쁘고’와 ‘뵈’는 보수적인 표기 사례라 할 수도 있겠지만 ‘뵈지(書)’는 앞의 ‘쁘-’에 이끌린 표기 혼동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예는 이 시기에 이미 ‘ㅂ’계 합용병서가 완전히 된소리화되어 ‘ㅅ’계 합용병서와 구별되지 않은 상황임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 시기 많은 문헌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ㄹㄹ’ 형태의 ‘ㄹㄴ’ 표기를

24) 이 환경에서 ‘엇어, 밋을진더’와 같이 표기하는 극단적인 ‘ㅅ’ 표기 현상이 17세기 후반부터 적잖은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 책은 그러한 표기를 보이지 않는다.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춘수(2006 : 373-374)에 서술되어 있다.

26) ‘ㅈ’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책도 보여주지만 역시 균질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12) 놀나오미, 진실노, 딸니; 진실로, 올리고, 알리오

예 (12)에서 보듯 같은 환경에서 ‘ㄹㄴ’과 ‘ㄹㄹ’ 표기가 혼재하고 있다. 특히 ‘진실로’는 이 책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진실노’가 1회, ‘진실로’가 4회 나타난다. 이처럼 특히 동일한 단어에 대한 이러한 이표기가 앞서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던바, 이들을 포함하여 이 책의 표기는 전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2) 음운

이 시기 언어에서 두드러지는 음운적 특징의 하나는 구개음화의 적용이다. 이 책 또한 전반적으로 구개음화 현상이 완전하지만 어휘 부류에 따라, 개별 어휘에 따라 반영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13) ㄱ. 엇지, 밋부지, 화치, 알지라, 흘지어다, 만흔지라, 이긋치, 고지듯지;
내디, 흐느디라, 흥흥디라, 미들진더
ㄴ. 둥흐오몰, 던던혀여, 와던흐논, 둥외로, 거려 둥의, 녕당혀기를

위 (13)의 예를 보면 (13ㄱ)의 고유어와 (13ㄴ)의 한자어 간에 구개음화 적용에서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고유어의 경우 형태소 내부와 경계 등 모든 환경에서 구개음화의 반영이 압도적이지만, 보조적 연결어미 ‘-지’와 종결어미 ‘-ㄴ디라’, ‘-ㄹ디라’ 등에서 소수 미적용 사례가 함께 나타난다.²⁷⁾ 특히 ‘미들진더’의 종결어미 ‘-ㄹ진더’는 제3음절은 구개음화가 적용된 반면 제4음절은 미적용된 형태로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한편 고유어와는

27) 보조적 연결어미의 구개음화 미적용 사례인 ‘내디’는 “넛 계도를 문허브리지 말고 새 법을 내디 마라 … (4a)”와 같이 한 문장 안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사례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

달리 한자어는 (13ㄴ)처럼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절대적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 책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많은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시기 중앙어에서의 구개음화는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구개음화 반영 양상의 차이는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보수성은 한자음 표기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원순모음화의 적용도 보이는데, 그 반영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

- (14) ㄱ. 불은, 문허(부리지), 밋부지, 등호오몰, 이제로부터; 그물, 물잇, 베프지,
 녀쥬로부터, 문득
 ㄴ. 무리(1a)/무리(3a), 무르며, 무르니, 불측흐

(14ㄱ)에서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불’과 같은 예들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예들이 좀 더 우세하다. ‘불’과 ‘문호- (壞)’를 제외하면 어휘형태소는 ‘그물, 물잇, 문득, 베프지’ 등과 같이 대부분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사 ‘-로부터’의 경우 원순모음화 적용형과 미적용형 ‘-로부터’가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14ㄴ)의 예들인데, 원래 원순모음 ‘ㄱ’를 가진 ‘무리(群), 문(間)-, 불측흐-’ 등이 ‘무리, 문-, 불측흐-’로 과도 교정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사 ‘문-’은 ‘무르며, 무르니’와 같이 모든 예에서 ‘문-’의 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 발음에서는 이미 원순모음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지만 책의 서술자가 보수적인 표기 태도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즉 의식적으로 원형을 밝혀서 표기를 하는 가운데 과도 교정의 예들이 나타나고, 일부 형태소 내부나, 접사, 조사 결합 과정에서 현실 발음이 무의식적으로 표기에 반영된 예들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척니, 덩녕을, 효유눔음’과 같이 어중의 두음 ‘ㄹ’이 ‘ㄴ’으로 된 예들도 눈에 띄며, ‘아니어든, 거시어늘, 척니곳’과 같이 ‘ㄱ’ 약화의 소멸과

관련하여 차이를 나타내는 예들도 볼 수 있다.

3) 문법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의 언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주목되는 변화들이 눈에 띈다. 먼저 조사의 사용 양상이다.

- (15) ㄱ. 세되, 창지, 계괴, 운쉬; 스세, 은혜
 ㄴ. 선조의, 을희의, 목하의, 도가의, 몹쓸 놈의, 과인의; 선대왕 지스
 ㄷ. 느추기의, 교화의, 근력의, 향곡의, 글의, 수력의, 진서의논, 빅성의계;
 이에, 쫓덩에
 ㄹ. 척니로서, 이제로부터/새로부터/너쥬로부터, 나라홀/나라와, 이제로조차

주격조사는 (15ㄱ)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의 양상과 차이가 없다. 이 시기에는 주격조사 ‘가’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 영조대인 1762년에 간행된 한글율음 『어제경민음』에서 ‘어늬가, 경고’ 등과 같이 ‘ㅣ’ 모음을 비롯한 모음 뒤에서의 ‘가’ 사용이 확인되었으나,²⁸⁾ 이 책에서는 ‘세되’처럼 모음 뒤 뿐 아니라 ‘ㅣ’로 끝난 ‘스세’, ‘은혜’에서도 주격조사 ‘가’의 사용을 볼 수 없다.²⁹⁾ (15ㄴ)은 속격조사의 예인데, 모두 ‘의’로 통일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무정 체언인 ‘선조(先朝), 을희(乙亥), 목하(目下), 도가(朝家)’ 등에도 ‘스’ 대신 ‘의’가 통합되거나, ‘선대왕 지스’처럼 중세국어라면 존칭의 ‘스’이 기대되는 환경에는 아예 조사가 빠져 있는 모습이다. 다만 1인칭 대명사 ‘나’의 속격형이 ‘나 부덕이(1ㄱ)’, ‘나의 팔방 빅성들아(3ㄱ)’, ‘내의 팔방 빅성들은(4ㄴ)’처럼 조사가 없는 ‘나와’, ‘나의’, ‘내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한편 처격조사의 경우 (15ㄷ)에서와 같이 ‘의’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우세하

28) 이에 대해서는 이영경(2019 : 222)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29) 주격조사 ‘가’는 16세기에 등장한 후 17세기는 물론 18세기에 들어서도 ‘ㅣ[ㅣ]’로 끝나는 체언 뒤에 서만 나타나다가 1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전체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영준, 1999 : 462-466).

게 나타나며, 여격조사도 ‘의게’로 나타난다. 반면 ‘에’는 ‘이에’, ‘궐딩에’의 두 예에서만 사용되었다. 그 밖에 (15ㄷ)에서 자격격 조사 ‘로써’와 함께, 완전히 조사화한 ‘-로부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동격조사 ‘와’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례가 보이는데, ‘ㅎ’ 종성체언인 ‘나라ㅎ’이 대격조사 결합형에서는 말음 ‘ㅎ’이 유지되어 있으나 공동격조사 결합형은 ‘나라궐’ 대신 ‘나라와’로 되어 있는 것이다. ‘ㅎ’ 말음 탈락의 과도기적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미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다.

- (16) ㄱ. 느추기의, 잇기의, 녕당ㅎ기를, 살기궐; 변화ㅎ기 어렵고
 ㄱ'. 흥역이 프리지어 닐어나는 거시(凶逆輩出), 낭기와 왕망의 흥흥 거슨(而
 糞葬之凶), 소문이 스방의 와던ㅎ는 거시 만흔지라(聲聞多訛於四方)
 ㄴ. 아니ㅎ노란 말로, 서늘ㅎ단 말도, 시르려노란 말은

(16ㄱ)에서 명사형어미 ‘-기’ 사용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명사형어미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16ㄱ')의 예들이다. 현대국어에서 명사형어미 ‘-음’, ‘-기’에 의한 명사절 대신 더 널리 사용되는 ‘-은/는 것’ 명사구보문 구성이 적잖이 보이는 것이다. 위의 예들은 중세국어라면 각각 ‘흥역이 프리지어 닐어나미’, ‘낭기와 왕망의 흥흥문’, ‘소문이 스방의 와던호미’와 같이 ‘-음’ 명사절로 번역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 예를 포함하여 이 책에서는 의존명사 ‘것’의 사용이 많은 편이다. 한문에서 흔히 나타나는 ‘所…’ 구성을 ‘-ㄴ 바’와 같은 일반적인 문어체 번역 대신 ‘-ㄴ 것’으로 번역한 경우도 꽤 있다.³⁰⁾ 이는 현대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자 이 책 번역의 성격, 즉 쉽고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으로의 번역을 지향하는 태도가 엿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6ㄴ)은 간접인용문이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 구성인데, 중세국어 시기에 인용문의 종결어미에 속격조사

30) 예컨대 ‘이는 다 모든 역격의 주출흔 거시나 <2b>(此則諸賊所做出也)’와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의존명사 ‘바’가 사용된 예는 ‘所謂’를 번역한 ‘닐은 바’ 외에는 없다.

‘스’이 결합한 ‘-닷’, ‘-노랏’의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 현대국어와 같은 ‘ㄴ’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ㅎ-’로 끝나는 용언의 활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양상도 주목된다.

- (17) ㄱ. 듯ㅎ야, 무홀ㅎ야, 불헿ㅎ야, 못ㅎ야, 아니ㅎ야; 던던ㅎ여, 심ㅎ여, 전
파ㅎ여, 독ㅎ여, 사랑ㅎ여, 넘어ㅎ연 지
ㄴ. 화치 못ㅎ니, 만홀치 못ㅎ더니, 희혹지 못ㅎ, 통분치 아니ㅎ리오, 요동
치 말며
ㄴ'. 평안케 흙은, 의혹게 ㅎ고; 소요ㅎ게 ㅎ고, 니심ㅎ게 ㅎ

우선 (17ㄱ)에서 어간 말 ‘-ㅎ-’ 용언의 활용형으로 기존의 ‘-ㅎ야’와 함께, 현대국어와 같은 ‘-ㅎ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책은 (17ㄴ), (17ㄴ')과 같이 ‘-ㅎ-’로 끝나는 용언이 부정문이나 사동문을 형성할 때 주로 축약형으로 실현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특히 (17ㄴ)에서처럼 ‘-ㅎ-’로 끝나는 동사와 형용사들이 부정의 연결어미 ‘-지’와 결합하여 장형 부정문을 구성하는 경우는 모두 어간 말의 ‘-ㅎ-’와 어미 ‘-지’가 축약된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³¹⁾ ‘못하다’, ‘아니하다’, ‘말다’ 부정문 모두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17ㄴ')의 장형 사동문에서는 축약형과 함께 비축약형도 나타나고 있다. 축약형은 주로 구어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습은 이 책의 문체적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4) 어휘

어휘적 측면에서 이 책에 나타나는 다음의 예들은 주목할 만하다.

31) 현대국어에서처럼 ‘-ㅎ-’ 앞 음절 말음이 공명음이면 ‘-ㅎ-’의 모음 ‘·’만 탈락하고 후행 어미와 축약된 형태로, 장애음이면 ‘-ㅎ-’ 음절 전체가 탈락한 형태로 실현된다.

- (18) ㄱ. 낮과 밤으로 어름을 브르며 못슬 님흔 듯흐야 <1a>(夙夜臨履)
 ㄴ. 심복을 거울러 눈음을 여러 번 누리오미 <1b>(敷心降綸)
 ㄷ. 아래를 님흐는 도리는 미양 너그럽고 큰 거슬 힘쓰고 <2a>(然臨下之道
 每務寬弘)
 ㄹ. 놀나오미 밋음이 서늘흐단 말도 오히려 혈후흔 말이라 <3b>(凜然而寒
 心者, 猶屬歎後語也)
 ㅁ. 위조흔 글은 진서의는 다 올리고 언문의는 니로 다 쓰지 못흐노라 <2a>

(18ㄱ) ‘브르며’는 이 책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형태이다. 원문의 ‘履’를 번역한 것인데 동사 ‘밟다’의 어휘형태사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흥미로운 예라 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밟다’는 원래 어간의 겹받침에 ‘빙’을 가진 동사로서 ‘밟고, 밟디, 밟바, 밟브며’로 활용하다가 ‘빙’이 소멸하면서 모음어미 앞에서 ‘블와, 블오며’로 형태가 바뀌게 된다. 그런데 17세기 말 『신전자초방언해』(1698)의 ‘밟으며’(2ㄱ)를 시작으로 모음어미 앞에 ‘밟-’이 선택된 예가 나타나고, 18세기 중반을 넘어가면 ‘블보며/블부며/블브며/밟으며, 블바/블버/밟아, 블버서, 밟을, 밟음’ 등의 예들이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반면 모음어미 앞의 ‘블오-’ 형태는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1763)의 ‘블올 디랴’(27ㄴ), 『십구사략언해』(1772)의 ‘블오샤’(1:20ㄴ)와 같은 영조대 문헌의 예를 끝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18ㄱ)의 ‘브르며’는 형태에 대한 이해 결여와, ‘-오-’를 선접한 ‘-음, -온, -오려’ 등의 어미에서의 ‘-오-’ 탈락에 이끌린 과도 교정으로 나타난 형태로 추정된다. ‘새로운’과 같은 예도 동일한 과도 교정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있지만 이 예는 구형 ‘블오-’의 거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18ㄴ)의 ‘거울러’는 ‘속에 든 것이 쏟아지도록 기울이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거우르다’의 활용형이다. 원문의 ‘敷心’의 ‘敷’를 번역한 것으로서³²⁾

32) ‘敷’는 ‘퍼다, 공포하다, 진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

‘마음을 기울여’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는데, 문헌상으로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³³⁾ 다른 문헌에서는 용례를 거의 볼 수 없지만 조선 후기 한글 소설에서 더러 사용된 예가 보인다.³⁴⁾

(18ㄷ)의 형용사 ‘너그럽다’ 역시 이 책에서 처음 나타나며, 동 시기의 『명의록언해 어제율음』에 ‘너그러이’(5ㄴ)의 예가 함께 보이고 있다. 원문의 한자 ‘寬’의 번역에 사용된 것인데, 이전까지는 ‘너르다/너르다’가 사용되었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너르다/너르다’에 대해 ‘사람의 마음, 심성’과 관련하여 의미가 좀 더 특수화된 형용사 ‘너그럽다’가 나타난 점이 흥미롭다.

(18ㄹ)의 한자어 형용사 ‘헐후헐다’는 영조대 문헌인 『천의소감언해』(1756)에서 처음 등장하는데³⁵⁾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뒤 끝에 붙은 말을 줄여 버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로 ‘-흠도 오히려 헐후헐 말이라/헐후헐 뒤 속헐엿도다’와 같이 ‘말’을 수식하거나 ‘말’의 내용이 주어가 되는 구성으로써 다분히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함도 오히려 줄인 말이다(부족한 말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책에서도 원문의 ‘猶屬歇後語也’를 ‘오히려 헐후헐 말이라’로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18ㅁ)의 부사 ‘니로’의 등장이다. ‘니로’는 원문의 번역어가 아니라 앞의 (1ㄴ)에서 제시된 협주에서 사용된 어휘이다. ‘여간하여서는 도저히’의 의미를 가지고 주로 ‘없다, 어렵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사용되는 현대국어 부사 ‘이루’의 직접적 소급형으로, 동사 ‘니르-(謂)’에 부사파생접미사 ‘-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부사라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같은 의미로 접사가 결합되지 않은 어간형 부사 ‘니르’ 또는 ‘니르’가 사용되어 왔는데 이 시기 개신형의 등장으로 두 어형은 유의 경쟁을 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의 어간형 부사와 쇠퇴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접미사 결합형 부사의 등장을 이 시기 국어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33)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한국어역사자료말뭉치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이다.

34) 『玄氏兩雄雙麟記』, 『쌍주괴연』, 『완월회맹연』 등의 소설에서 그 예가 보인다.

35) 17세기 문헌인 『우암선친계녀서』에 부사 ‘헐후이’가 나타난다.

4. 결론

본 연구는 정조 율음언해의 시작인 『효유율음』의 국어사적 가치와 그 언어적 특징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형태적인 측면에서 『효유율음』은 대체로 先代인 영조대 율음언해의 예를 수용하면서도 새로운 형태로 간행되었다. 한문 율음과 순한글로 된 언해문을 각기 독자적인 텍스트로 나란히 실는 체재를 취하였는데, 이는 한글이 국가 공식 문서의 일부로 사용됨으로써 문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율음의 언해문은 한문과 독립된 독자적인 텍스트로 제작되는 것이 관례화된다.

협주의 등장은 언해문이 형식상 독립됨에 따라 그 텍스트로서의 독자성과 지속성을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데, 이 책의 협주는 인물이나 문맥에 대한 간단한 지시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협주 사용의 특성은 의역의 성격이 강한 이 책 번역의 태도와 관련된다. 또한 이 책은 왕의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정형적인 문서식에 따라 글이 시작된다. ‘王若曰’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왕약왈’로 시작되는데 이후의 율음언해에서는 “왕이 이르러시 글으샤디”로 바뀐다.

이 책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언해의 성격으로, 율음언해는 전형적인 직역의 문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책의 번역은 강한 의역의 모습이다. 글 전반에 걸쳐 원문의 한자를 가급적 고유어 또는 쉬운 어휘로 번역하고, 원문의 문장 구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쉬운 국어 문장으로 바꾸어 번역하고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원문의 내용을 보충 및 대폭 삭제하거나 문장 유형을 바꾸기도 하는 등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침삭과 변개를 가하는 의역의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이러한 번역 태도는 전형적인 율음언해는 물론, 공식적인 글의 번역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모습인데, 이는 위조 율음 사건에 관한 백성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과, 아직 율음의 언해와 관련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

어진 언해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언어적 측면에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정체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표기에서는 영조대의 한글율음들에 비해 균질성이 떨어지며, 길지 않은 글임에도 동일어의 이표기, 형태 혼동 및 과도 교정에 의한 오표기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운에 있어서는 우선 구개음화 현상이 완전한 가운데 어휘 부류에 따라 압도적 적용을 보이는 고유어와, 미적용의 한자어가 대비되는 양상이 주목된다. 원순모음화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다소 우세하지만 과도 교정의 예도 보이고 있어 현실 발음에서는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문법에 있어서는 조사의 경우 속격조사가 모두 ‘의’로 통일되고, ‘로셔’, ‘-로부터’의 완전한 조사화가 특히 눈에 띄며, 어미의 경우 명사형어미 ‘-기’의 확대와 함께 의존명사 ‘것’ 사용의 증가가 특히 주목된다. 기존의 ‘-음’ 명사절 대신 ‘것’ 명사구보문 구성의 사용이 적잖이 보이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인용문 뒤의 ‘시’이 현대국어와 같은 ‘니’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도 눈에 띈다. 또한 ‘-ㅎ-’로 끝나는 용언이 장형 부정문이나 사동문을 구성할 때 축약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특이한 부분이다.

어휘에서는 ‘뵈다’의 활용 형태 변화와 관련한 ‘브르며’, 문헌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동사 ‘거우르다’와 형용사 ‘너그럽다’ 등이 주목되고, 특히 부사 ‘니로’가 새로 등장하여 기존의 어간형 부사 ‘니르/니르’와 유의 경쟁을 하는, 이 시기 어간형 부사의 쇠퇴와 관련한 어휘 변화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백철, 「영조의 율음과 왕정 전통 만들기」, 『장서각』 26, 2011.
- 김상돈·이경희, 「근대국어의 격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편), 월인, 1999.
- 박영준, 「격조사의 통시적 연구」, 『국어의 격과 조사』(한국어학회 편), 월인, 1999.
- 박진호, 「정조대의 율음 언해1 -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문헌과해석』 창간호, 1997.
- 백두현, 「조선시대의 한글 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92, 2001.
- _____, 「한글을 중심으로 본 조선시대 사람들의 문자생활」, 『서강인문논총』 22, 2007.
- _____,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단학보』 108, 2009.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奎章閣所藏語文學資料 - 語學篇 解説』, 태학사, 2001.
- 심보경, 「영조대 율음언해 자료의 간행의의와 통사」, 『어문연구』 178, 2018.
- 안병희,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7.
- _____, 『국어사 문헌 연구』, 신구문화사, 2009.
- 이영경, 「영조대의 교화서 간행과 한글 사용의 양상」, 『한국문화』 61, 2013 ㄱ.
- _____, 「사서삼경의 언해 양상과 표기상의 특징」, 『우리말글』 57, 2013 ㄴ.
- _____, 「『소학언해』의 한 필사본에 대하여 - 窮儒寒士의 『소학』 학습과 그 언어 사용 양상」, 『국어학』 80, 2016.
- _____, 「조선 후기 순한글본 『소학언해』와 그 언어·문화적 가치」, 『한국학연구』 47, 2017.
- _____, 「『御製謦民音』과 한글 율음의 의의」, 규장각 53, 2018.
- _____, 「『御製謦民音』의 언어」, 한국학연구 52, 2019.
- 이익섭, 「국어 표기법의 두 원리」,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 이현희·이영경 외, 『근대한국어 시기의 언어관·문자관 연구』, 소명출판, 2014.
-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2008.
- 정재영 외, 『정조대의 한글 문헌』, 문헌과해석사, 2000.
- 지춘수, 「국어 표기법의 전개와 변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한재영·심보경, 『역주 율음언해』 제1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6.
- _____, 『역주 율음언해』 제2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7.
- 홍윤표,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1994.
- 황선엽, 「경기도 백성에게 내리는 정조의 율음」, 『문헌과해석』 2, 1998.
- _____, 『율음』, 디지털한글박물관, 2005.
(<http://www.hangeulmuseum.org/sub/hanLife/document/yoounum01.jsp>)
- _____, 「정조대 율음언해의 간행」,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사업단 제12회 HK워크숍 발표자료 집, 2011.

The Beginning of Yuneum-Eonhae in the Age of King Jeonjo Concentrating on 『Hyoyu-Yuneum』

Lee, Yeong-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n historical value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Hyoyu-yuneum which was the beginning of King Jeong-jo's Yuneum-eonhae. Hyoyu-yuneum, which was made in King Jeong-jo's year of accession, was yuneum to retrieve confused public sentiment because of spreading fake yuneum. This was published a single volume of each text in the original written in Chinese character and the Korean translation written in pure Hangeul. This book appeared to be a transitional and unusual form compared to the typical yuneum-eonhae because this was a initial King Jeong-jo's yuneum-eonhae. The best feature of this book showed a strong free translation, which was not bound by the original text, in contrast with general translations of Yuneum-eonhae. Although this book showed well a form of Korean in the late 18th century, this was generally uneven and unrefined compared to hangeul yuneum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The reason was that the book was published in the incomplete period about a system of yuneum-eonhae.

Key words: Yuneum, Yuneum-eonhae, King Jeong-jo, 『Hyoyu-yuneum』,
Literal translation, Free translation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10일 || 심사완료일: 2020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1월 20일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